

## OPD12) GIS를 이용한 수원시 장기미집행 공원의 조성 우선순위 분석

김범수 · 한갑수

강릉원주대학교 환경조경학과

### 1. 서론

도시공원은 도시민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며, 도시형태의 골격을 구성함과 동시에 도시의 발전에 일정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도시계획시설이다(이다숨, 2015). 2020년 7월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일몰제가 시행되었으며, 상당수의 공원이 미조성된 상태로 남아있어, 이 공원에 대한 난개발 및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(조점임, 2000). 본 연구에서는 GIS를 이용해 수원시의 공원 분포 변화를 분석하고, 장기미집행 공원을 대상으로 공원 조성 시 우선순위를 정하여 향후 공원정책 결정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.

### 2. 자료 및 방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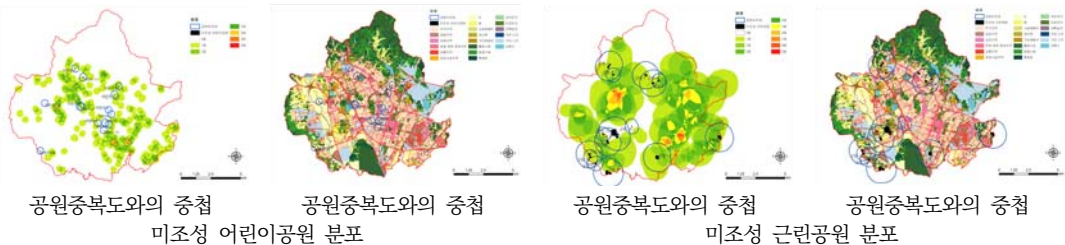
수원시의 수치지도, 토지피복도, 행정구역도, 공원분포 등의 연구자료를 수집하였으며, 이들 자료를 토대로 시계열별 토지이용, 공원 개소 및 면적 변화를 파악하였다.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의 공원별 유치 거리를 기준으로 기초성된 어린이공원, 근린공원에 대해 유치권을 설정하고, 중복도를 작성하였으며, 이 결과와 미조성 공원의 유치권을 중첩하고, 토지피복을 고려하여, 공원조성의 우선순위를 분석하였다. 이를 통해 기초성된 공원유치권에 포함되지 않으며, 주거 및 상업지역 등 주민이용도가 높은 곳의 미조성 공원을 우선순위로 설정하였다.

### 3. 결과 및 고찰

수원시는 2001년부터 2018년까지 시가화 건조지역과 농업지역은 47.2%, 21.1%에서 38.6%, 14.7%로 감소했고, 초지와 나지는 0.9%, 4.0%에서 9.1%, 10.4%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. 산림지역은 23.5%에서 24.6%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. 영통구는 산림 및 농업지역이 29.9%, 16.4%에서 18.2%, 4.5%로, 나지와 초지는 5.8%, 1.4%에서 22.2%, 12.8%로 타 지역에 비해 크게 변화했다.

공원은 2001년 소공원 2개소, 어린이공원 87개소, 근린공원 17개소, 주제공원 1개소 등 107개소, 면적 1,390,539 m<sup>2</sup>에서 2018년도에는 소공원 35개소, 어린이공원 205개소, 근린공원 77개소, 주제공원 29개소 등 총 346개소, 7,889,145 m<sup>2</sup>로 크게 증가하였다. 이 중 권선구는 어린이공원과 주제공원이 부재했지만 각각 21개소, 23개소로, 어린이공원과 근린공원은 21개소, 5개소에서 73개소, 30개소로 타 지역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.

기조성공원의 유치권분석 결과, 어린이공원 유치권 중복도가 '0'인 경우는 전체 면적의 71.4%, 근린공원은 약 27.2%로 나타났다. 2018년 현재, 미조성공원은 69개소, 면적은 2,312,807 m<sup>2</sup>이며, 공원 유치권의 중복도가 '0'인 경우가 어린이공원은 4개소, 근린공원은 0개소로 나타났다. 이 결과와 토지피복도를 고려한 미조성공원의 조성 우선순위 분석결과, 어린이공원에서는 공원 2, 공원 1, 공원 14, 근린공원은 공원 4, 공원 10, 공원 1의 조성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.



### 4. 참고문헌

이다숨, 2015, 수원시 도시특성을 고려한 도시공원 분포의 적정성 평가, 단국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.  
조점임, 2000, 도시공원조성에 있어서 AHP를 이용한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연구, 동아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.